

금호타이어, 임금 동결에 잠정합의

2013년 격려금 228% 수준 지급 ... 설비·신규투자 지속적으로 진행

금호타이어(대표 박삼구·김창규) 노사가 2013년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6월26일 열린 제12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교섭에서 노사는 2013년 임금을 동결하고 월평균 급여의 228% 수준의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했다.

또 최우선 과제인 워크아웃 졸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13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국내공장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설비투자와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노조는 6월27-28일 단체교섭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에 이어 찬반투표를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7>